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인식과 윤리의식

- 전영택 초기 단편소설 연구

오 창 은*

차 례

- | | |
|------------------------------|---------------------------|
| I. 『창조』와 세 명의 조선인 청년들 | 2. 비근대적 존재의 파멸 |
| II. 전영택 약전(略傳) - 신학과 문학 사이에서 | 3. 약소자에 대한 연민 |
| III.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의식 | IV. 식민지 지식인이 응시한 '근대의 그늘' |
| 1. 분열하는 자아의 근대 인식 | |

국문초록

전영택은 김동인·주요한과 함께 조선 최초의 순문예지로 일컬어지는 잡지 『창조』의 창간을 주도했다. 그런데도, 전영택의 문학세계는 그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본자는 전영택의 '근대인식'과 '윤리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식민지 근대의 복잡성이 근대 초기 문학 개척자의 세계인식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를 추적했다.

전영택 초기 소설은 일제 강점기에 배제된 주체들의 비극적 삶을 포착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이 어떻게 근대의 부정성을 갈

*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무리하고 있는가를 그려냈다. 전영택은 냉정한 시선으로 과감한 생략의 기법을 활용하고, 감정을 가급적 배제한 서술로 단편소설의 미학적 발전에도 기여했다.

전영택은 ‘구체적 개인’과 ‘보편적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근대적 소시민의 불안한 정체성을 포착해냈다. 그의 초기 작품세계는 ‘자기 삶에 안주할 수 없는 소시민’의 시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층민’의 삶을 주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혜선의 사>을 통해서도 여인의 입장을 채택해 ‘자유연애’가 식민지 경성에 미치는 파국적 결말을 제시했고, <천치? 천재?>에서는 근대적 규율권력이 ‘자연인으로서의 칠성’을 어떤 방식으로 파괴하는가를 아프게 그려냈다. 또한, <화수분>과 <바람부는 저녁>에서는 소시민의 시선과 약소자의 상황을 겹쳐냄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의 ‘균열된 윤리의식’을 아프게 성찰했다.

이는 근대를 절대화하지 않고 근대의 그늘을 응시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소시민적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약소자를 방기하지 않으려는 자기 성찰적 태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영택의 초기 소설은 ‘보편(이광수)과 개인(김동인·현진건·염상섭·최서해)’ 사이에서 윤리의 문제를 고뇌하면서 ‘근대적 소시민의 발견으로 나아간 문학’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주제어 : 전영택, 식민지 지식인, 근대인식, 윤리의식, 『창조』, <혜선의 사>, <천치? 천재?>, <화수분>, <바람부는 저녁>

I. 『창조』와 세 명의 조선인 청년들

1918년 11월경,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기숙사에 묵고 있는 한 청년에게, 두 명의 손님이 찾아들었다. 손님으로 찾아 온 이중

한명이 작심한 듯 “잡지 하나 안해봐?”라는 말을 꺼냈다. 같이 온 다른 청년도 “순문예잡지 하나 해봅시다”라고 거들자, 아오야마학원의 청년 유학생도 잡지 창간에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인 청년들로, 손님으로 찾아온 두 명의 젊은이는 김동인(가와바타 미술학교)·주요한(도쿄 제1고등학교)이었고, 기숙사에 묵고 있었던 이는 전영택(아오야마 학원)이었다. 이렇게 조선 최초의 순문예지 『창조』는 탄생했다. 초기 동인은 이들 셋에 김환이 합류해 네명이었다. 이들이 쉽게 잡지 창간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일본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에서 발행하는 『학지광』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도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당시 매신에 발표되던 춘원의 『개척자』평이며, 일본의 문예잡지 『신조(新潮)』의 문예운동, 동인잡지 『백화(白樺)』의 이야기로 당시에 동경에서(동경에서라기보다 온 조선인 사회에) 하나밖에 없는 『학지광(學之光)』의 내용이 보잘 것 없는 것이라든지 그 편집하는 꼴이 우스운 것이라든지 그 중에도 편집하는 이들이 문예에 너무 이해가 없어서 문예작품을 여지없이 박대한다는 비평보다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소설이라면 6호 활자로 맨 끝에 몰아 집어넣는 것이 예사였습니다.¹⁾

전영택은 『창조』를 창간하기 이전에 『학지광』에 시를 투고했다가, 게재되지 않는 수모를 당했다. 그는 그나마 실리는 문학작품도 맨 끝에 배치하거나, 게재되는 페이지수를 줄이기 위해 작은 활자인 6호로 편집한 데 대해 분개했다. 『학지광』이 일본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계몽주의적 담론 위주로 편집되던 것에 대한 반감이 문학청년들 사이에서는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동인·전영택·주요한 등은 문예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 아래, 『학지광』과는 다른 새로운 잡지 『창조』를 창간했다.

1) 전영택, 「창조시대, 문단의 그 시절을 회고함」, 『조선일보』 1933년 9월 20일자, 2면.

주요한이 창간호 편집과 출자를 맡았고, 요코하마 복음인쇄소²⁾에서 조판 및 인쇄 작업이 이뤄졌다. 창간호는 51페이지 분량이었고, 30전의 가격이 매겨져서 조선으로 반입되었다. 『창조』 창간호에 수록된 작품은 주요한의 <불노리>,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전영택의 <혜선의 사> 등이었다. 주요한의 <불노리>는 한때 최초의 근대 자유시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김동인은 이광수의 계몽주의 문학을 넘어서는 소설 미학을 확립했다는 문학사적 위치를 점했다.

하지만, 주요한과 김동인에 비교해 볼 때³⁾, 전영택은 문학사적으로 덜 주목받은 작가다.⁴⁾ 전영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독교의 영향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⁵⁾ 목사였던 전영택은 작품

2) 요코하마 복음인쇄소는 조선어 성서를 인쇄하던 곳으로, 염상섭이 이곳에서 인쇄 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김윤식은 염상섭에 대해 “1919년 6월 6일 유치장에서 나온 염상섭(1심에서 금고 10개월, 2심서 무죄)은 김동인이 간행한 『창조』를 찍던 요코하마에 있는 복음인쇄소에서 노동자로 근무도 했으며, 드디어 『동아일보』 창간과 함께 정경부 기자로 발탁된 것이 1919년 12월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윤식, 『증언으로서의 소설 - 염상섭론』, 『20세기 한국 작가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53쪽.)

3) 문학사 기술에서 전영택은 김동인의 보조자로 언급되기도 한다. 조동일은 전영택을 문학사적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전영택(1849~1967)은 김동인과 어려서부터 가까운 사이이며, <창조>의 동인으로서 단편소설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런데 김동인과는 다르게 집안에서 이어받은 기독교 신앙을 존중해 목사가 되었으며 소설 창작에 전념하지는 않았다. 소설 때문에 고심하다가 파탄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 위기에서 가볍게 빠져나갔다. 김동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전영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서울:지식산업사, 1994, 113쪽.)

4) 한 예로 김동인만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은 7편에 이르고, 주요한만을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논문은 7편이다. 반면, 전영택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은 최근에야 두 편 발표되었다. (임희중, 「늘봄 전영택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현숙, 「전영택 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5) 백철, 「한국의 현대소설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논문집 4』, 중앙대학교, 1959.10. 최옥선, 「늘봄 전영택론 : 기독교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2.

표인복, 「늘봄 문학의 기독교 수용」,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7.

세계에 기독교적 색채가 짙게 배어 있으며, 약소자(minority)에 대한 연민의 감성이 곳곳에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초기 단편소설을 ‘자연주의’와 ‘(기독교적인) 인도주의’로 규정한 기존의 연구는 큰 틀에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⁶⁾ 논자는 전영택 초기 소설의 해석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그의 근대인식과 윤리의식을 재조명함으로써 문학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근대 초기 지식인으로서 전영택의 내적 갈등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전영택 초기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식’과 ‘윤리의식’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인식을 징후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민지 근대의 복잡성이 근대 초기 문학 개척자의 세계인식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우선 전영택의 생애를 맥락화한 후 그의 초기 소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 전영택 약전(略傳) - 신학과 문학 사이에서

전영택은 1894년 1월 18일 평양 사창(社倉)골에서 부친 전영석과 모친 강순애의 4남 4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전영석은 보동학교(保東學校)를 설립해 육영사업을 펼친 개화파 지식인이었다. 부친의 영향으로 전영택은 1908년 대성중학에 입학해 3학년까지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의 영향을 받았다. 도산 안창호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도산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민족운동 단체인 홍사단과 수양동우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의 전기를 쓰기도 했”⁷⁾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전동신, 『전영택의 기독교적 인도주의 고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2.

6) 이재선은 전영택의 문학세계를 “작위적인 허구성을 배제하고 經驗主義的인美學化 및 인도주의의 연민적 인간애를 그 기초라 하고 있다”고 정리했다.(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서울:홍성사, 1979, 257쪽.)

성장기 전영택에게 기독교의 영향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작은 형 전선택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접했고, 한국 최초의 감리교 목사이자 평양 남산현 교회의 설립자인 김창식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918년, 가우처(J. F. Goucher) 목사가 선교를 위해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문학부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신학부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영택은 만만치 않게 번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우처 목사의 장학금은 한국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었기에, 전영택은 문학과 종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신학부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유학중에 김동인·주요한·김환과 함께 1919년 2월에 최초의 종합 문예동인지 『창조』를 창간했다.

그는 『창조』 창간호에 단편 <혜선(惠善)의 사(死)>를 발표해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창조』 동인으로 참여한 의무감에서 창작한 것으로 작품의 말미에 '1919년 1월 9일 습작'이라는 내용을 첨가한 것이 인상적이다. 전영택의 초기 문단을 회고하는 글에서 그의 첫 작품으로 <천치(天痴)? 천재(天才)?>를 내세우기도 해, 이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⁸⁾ 이후, <천치? 천재?> (1919) <운명>(1919) <독약을 마시는 여인>(1921) <화수분> (1925) <홍련 백련>(1925) <후회>(1929) 등 발표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했다. 전영택은 『창조』 창간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매부인 방인근이 주도한 『조선문단』(1924) 창간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방인근에게

7) 표언복, 「늘봄 전영택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6.1, 184쪽.

8) 기억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잘 못인 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영택은 해방 이후의 몇몇 회고에서 『창조』 창간호에 실린 자신의 작품은 <천치? 천재?>로 표기했다.(전영택, 「창조시대 회고」, 『문예』, 1949.12 ; 전영택, 「나의 문단생활 회고」, 『신천지』, 1950.4 ; 전영택, 「『창조』와 『조선문단』과 나」, 『현대문학』, 1955.2.) 그러다 1956년부터는 쓴 회고에서는 창간호에 실린 작품은 <혜선의 사>로, 제2호에 실린 작품은 <천치? 천재?>로 구분해 제시했다.(전영택, 「나의 문단 자서전 - 그 시대의 나의 생활회고기」, 『자유문학』, 1956.6.)

이광수를 소개시켜주었고, 그 자신도 『조선문단』에 작품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전영택은 일생을 목회자로 살았다. 아오아마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서울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27년에는 아현교회 목사로 취임한 이후 목회활동에 전념하면서부터는 소설 창작이 다소 뜸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의 전영택은 진리를 설교하는 목회활동과 허구를 창작하는 문인활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뇌로 인해 고통을 받던 듯하다. 1930년에 쓴 한 글에서 전영택은 “아직 종교문학이라 할 만한 작품이 나지 않았고 종교문학을 쓰는 이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 실로 우리교계에 적지 아니한 문제라, 진실로 큰 유감이요 크게 생각할 만한 일이다”⁹⁾라고 했다.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소설 창작 활동까지 포함한 반성적 진술로 읽을 수 있다. 1930년에는 미국 패시픽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1932년 귀국했다. 그는 홍사단과 연계를 맺고 있는 계몽적 독립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민족운동에도 관계했다. 그런데, 1937년 일제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81명의 지식인을 구속한 ‘수양동우회사건’¹⁰⁾으로 고초를 겪은 후 전환기를 맞이했다. 전영택은 현제명·홍난파 등과 함께 전향서를 작성하고,

9) 전영택, 「성문학(聖文學)」, 『기독신보』, 1920.1.8.

10) 이광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1922년 2월에 안창호의 홍사단 국내조직으로 ‘수양동우회’를 결성했다. 이 조직에는 김종덕·박현환·김윤경·강창기 등 10여명이 포함되었다. 같은 시기인 1922년 7월에 평양에서도 김동원·김성업·김병연·조명식 등이 주축이 되어 ‘동우구락부’가 조직되었다. 안창호는 이 두 조직의 통합을 권유했고, 1926년 1월 8일에 ‘수양동우회’를 결성했다. 조선 기독교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수양동우회는 『동이일보』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하여 활발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일제는 1937년 5월 재경성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작성한 ‘멸망에 함(陷)한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인쇄물을 문제삼아 181명의 지식인 검거했다. 이것이 ‘수양동우회사건’이다. 이후, 1938년 5월에 수양동우회 관계자들을 기소유예처분하고, 전향서를 받아냄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양현혜, 「황민화’ 시기 개신교 실력양성론의 논리구조 - 수양동우회와 홍업구락부 세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한국종교학회, 2008, 101~103쪽.)

친일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1944년에는 평양 신리교회 재직 중 설교 사건으로 한 때 구금되는 등 일제말기에도 시대와 불화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조선민주당 문교부장, 문교부 편수관, 국립맹아학교, 중앙신학교 교수를 역임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했다. 한국 전쟁 중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한국 복음신문 주간을 지내다 1953년 귀국했다. 이 시기 그의 생활은 여성 작가 김명순에 대한 독특한 기록소설인 <김탄실과 그 아들>(1955)에 잘 나타나 있다. 귀국 후 기독교서회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해 <외로움>(1955) <집>(1957) <해바라기>(1959)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1960) 등을 집필했다. 초기의 작품이 지식인과 하위계층, 그리고 윤리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들 후기 작품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매개로 갈등의 화해를 추구해 특징적이다.

전영택은 1961년에는 한국문인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근대문학 초기 개척자로서의 작가적 위상을 회복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서울시 문화상(1961)과 대한민국 문화포상 대통령장(1963)을 수상해 한 때 한국문학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1967년 1월 16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창작집 『생명의 봄』(1926)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1958) · 『전영택창작선집』(1965) 등의 작품을 남겼고, 논설집 『생명(生命)의 개조(改造)』(1926), 전기로 『유관순전』(1953)이, 수필집으로는 『의(義)의 태양(太陽)』(1955) 등을 간행했다. 초창기 한국근대문학 개척자로서의 위상과 후기 한국문인협회 초대 이사장으로서 지위에 비춰볼 때, 그의 작품은 소략하다. 하지만, 그가 한국문학사에서 근대문학 초기에 이룬 개척자적 업적과 문학적 개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교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Ⅲ.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의식

전영택은 『창조』에 발표한 작품들에 본명을 표기하지 않고, ‘장춘(長春)’ ‘늘봄’ ‘밧늘봄’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그 연유에 대해 전영택은 신학공부를 마친 후 장차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문예잡지에 참여하고 소설을 쓰는 것을 타락으로 여기는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¹¹⁾ 대외적으로 자신을 숨기면서 문학 활동을 해야 했던 신학도의 고뇌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뇌를 내장한 그의 초기 작품은 어떤 특징적 결을 드러내고 있을까?. 그 특징을 도출해내기 위해 <혜선의 사>와 <천치? 천재?>, 그리고 <회수분> · <바람부는 저녁> 등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 작품들은 근대적 세계와 갈등하는 여성을 그리는가 하면, 사회체제에서 배제된 이들을 감성적 께안음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 차이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 될 때, 그의 초기 작품 세계가 구현해내고 있는 문학적 무늬와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 현실이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 분열하는 자아의 근대 인식

전영택에게 『창조』 창간 참여는 ‘개척자’적 태도로 임한 도전이었다. 그는 『창조』라는 제호가 ‘아무것도 없는 조선의 신문예를 개척하고 창조

11) 이에 대해 전영택은 “그때에 소설이라면 으레히 연애소설로 알고 가장 애국자로 자임하고 종교가로 자처하는 학생이나 본국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장 무시하고 자만시할 뿐 아니라 소설을 쓰는 사람을 일종 타락한 사람으로 여기는 시절”이어서, “청산학원(대학) 신학부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장차 목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문예잡지를 내는데 참여한다거나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그때에 내 작품에 본명으로 서명하지 않고 ‘늘봄’이란 ‘펜네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택, 「나의 문단 자서전 - 그 시대의 나의 생활회고기」, 앞의 책 ; 전영택, 『늘봄 전영택 전집 3』 (표인복 엮음), 대전:목원대학교 출판부, 1994, 506~507쪽 재인용.)

하자는 대포부·대야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창조』의 문학사적 의미는 김동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옹호되었다. 그는 『삼천리』와 『삼천리 문학』을 통해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춘원연구」를 발표했다. 그중 『삼천리』 1935년 3월호에 실은 「春園研究(五)」에서 『창조』 창간의 의미를 1) 리얼리즘 문학 도입 2) 구어체의 확립 3) ‘그’라는 3인칭의 도입 4) 평안도 사투리 등의 활용으로 조선어의 풍부화 5) 과거 시제의 사용 등이라고 했다.¹²⁾ 주목할 부분은 김동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春園까지에 잇서서는, 그 글투에, 「이러라」 「이더라」 「하도다」 「이로다」 등은 그냥 구어체로 사용하였다. 「創造」同人들은 의논하고 이런 정도의 글까지도 모도 一蹴하고 「이다」 「이엇다」 「한다」 등으로 갖쳐 버렸다.¹³⁾

『창조』가 시도한 문체의 변화가 동인(同人)들과의 의논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다’ ‘이엇다’ ‘한다’ 등의 구어체 도입과 ‘한다’ ‘이다’의 현재시제에 대비해 과거시제인 ‘했다’ ‘이엇다’ 등을 도입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서술어의 구어체 채용과 시제의 변화는 전영택의 소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종의 문체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의도적 기획’에 전영택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영택 초기 문학이 갖는 형식적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基督敎人인 데서 온 宗教的 「휴머니즘」의 表現¹⁴⁾으로 쉽게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소설은 기독교적 휴머니즘으로 포용되지 않는 ‘근대인식’과 ‘윤리의식’을 내장하고 있다. 식민지 초기 젊은 지식인으로서 전영택은 ‘근대와 식민지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확보하며 자기

12) 김동인, 「春園研究(五)」, 『삼천리』제7권 제3호, 삼천리사, 1935.3, 171~172쪽.

13) 위의 책, 172쪽.

14) 백철·이병기, 『國文學全史』, 서울:신구문화사, 1987, 287쪽.

정체성을 확립했을까? 그 간극 사이에서 이뤄지는 분열적 양상을 <혜선의 사>와 <천치? 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혜선(惠善)의 사(死)>(1919)¹⁵⁾는 S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한 여인을 그린 소설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혜선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신원근과 결혼했으나, 신원근이 곧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홀로 남게 된다. 혜선은 결혼 후 뒤늦게 아버지의 권고로 공부를 시작하는 등 구여성의 굴레를 벗어나려 애를 쓴다. 그러나, 남편인 신원근은 혜선을 외면한 채 동경에서 돌아올 줄 모른다. 이 소설은 서울과 동경이 공간적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확연히 드러낸다. 근대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동경과 전근대적 현실과 근대적 사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성이 교차된다. 소설에서 혜선의 내면적 갈등은 동경 미술학교 동양화과에 들어가 공부하는 친구 안정자가 혜선을 방문하면서 증폭된다. 안정자는 혜선에게 이혼을 권하는 듯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離婚을 할 사람은 해썬리는거시 올흔줄알아. 나더러 남편년이라고 들 할는지 모르겟지마는 좀생각을해보아! 세상에 第一 어리석은 물건은 朝鮮女子야! 사실나히는 실타는데 엇저자고 부덕~살자고한단말이야? 그사나히아니면 사나히가엿다고 흥. 烈女는不更二夫니무어니하는말은 몇千年前넛날에 精神싸진 사나히들이제마음대로함브로한말이야, 굿다위말째 문에 우리나라에 慘酷하게 한平生을보낸사람이 얼마나만올테요. 아이구 구역나, 혼자살지혼자살어! 그러구 大體結婚이라는 法이 몬져 생겼겟소? 남녀의 사랑이 몬져 생겼겟소? 조선사람은 모도그 아니꺼운法의 종이되 어서엇절수가업서! 말하면 사람이라니 제꾼으로 제목을매는 썸이야. 以往 아모것도 모르고 泰平하게 지내는사람은 몰나도 한번눈을쓴다음에야 누가그어리석고無意味한 結婚生活을 하려고 하겟소. 男子들도 同情할만 하기가 하지! 第一 불상한거슨 女子야!¹⁶⁾

15) 長春, <惠善의 死>, 『창조』 창간호, 1919.2.

16) 위의 책, 28쪽.

이러한 안정자의 주장에 대해 혜선은 ‘그 말의 속 뜻에 의구심’을 표한다. 이야기를 같이 들은 수덕은 “공부나 좀 했다는 재센지 英語와 日語는 절반이나 더 석거말하데!”라며 빈정거린다. 그러면서 “에그 우리도 어서 東京이나 갑시다”라고 한탄하며, 무의식적으로 근대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드러낸다. 혜선도 “東京을가드니 그러케 變同했서요. 態度든지말하는게든지. 앓가 지거리든말이그게다 무슨 말이요. 하나도當치아는소리를……”이라고 동조한다. 혜선과 수덕의 정자에 대한 태도는 징후적이면서 실재적이다. 근대적 태도로 볼 때, 정자가 ‘두남편을 섬기지 않는다(不更二夫)’는 전통적 관념을 비판하고, 남녀의 사랑에 기반해 결혼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식민지 경성에서 여학교를 다니고 있는 혜선과 수덕에게는 도무지 현실과 조화로울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혜선의 사촌오빠인 동욱까지 방문해 “예수敎에서도 그거슬(이혼을)許諾하고, 그러구 사람의 運命은勿論 제손으로 開拓하기에 달닌거시다”라며, ‘신원근과 이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한다.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신원근이 일본에서 여자고등사범학교에서 공부하는 윤정희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져 있기에 혜선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이혼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이를 혜선의 주체적 판단과 연결시키기 위해 정자와 동욱이 혜선을 방문해 설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경성에서는 이혼 후 개가(改嫁)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혜선의 아버지도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이렇다 보니, 혜선의 분열적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만다. 혜선이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으로 가는 전차를 탔을 때, 여자 혼자 전차를 타는 것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식민지 경성의 밤풍경이었다. 식민지 경성에서 이혼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판단은 현실과 괴리된, 동경에서나 가능한 듯이 보이는 관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동경에서 이뤄진 결정이 식민지 경성의 혜선에게 급작스럽게 압박해 들어오자, 혜선은 그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결행하고 만 것이다.

이 소설은 전영택이 당시 남녀문제를 애정문제로 국한해 접근하는 소설적 경향에 반발해, 애정문제를 피하면서도 소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쓴 소설이었다. 김행숙은 <혜선의 사>를 최승만의 희곡 <황혼>과 대비해 읽으면서, “1920년대 초기에 ‘연애’는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더불어 연애는 “인습을 따르지 않고 근대적인 삶의 형식을 선택한다는 의지의 표명”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 하지만 김행숙의 독법은 <혜선의 사>가 갖고 있는 상대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규명해 내지 못한 것이다. <혜선의 사>는 연애를 둘러싼 남성의 욕망과 여성의 현실적 굴레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욕망이 여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혜선의 사>의 의미는 그의 작품 <운명>(1919)¹⁸⁾과 대비해 읽을 때 보다 명료해 진다. <운명>은 근대소설 중 3·1 운동 이후 감옥생활을 그린 최초의 소설로 의미가 있다. 전영택 초기 소설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들이 3·1운동 이후의 세계를 그린 작품들이고, 이 중 <운명>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감옥생활을 하게 되면서 애인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의 내면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운명> 이외에도 이 계열의 작품으로는 평양의 기독교 사회를 중심 배경으로 하면서 신앙이나 예술이나를 놓고 갈등하는 나영순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생명의 봄>(1920)¹⁹⁾, 그리고 감옥생활로 인해 아이를 유산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독약(毒藥)>을

17)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서울:소명출판, 2005, 201쪽.

18) 長春, <運命>, 『창조』 제3호, 1919.12.

19) 늘봄, <생명의 봄>, 『창조』 5~7, 1920.3·5·7.

마시는 여인(女人)>(1921)²⁰⁾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3·1운동 이후의 풍경을 실감 있게 재현한 문제작들이다. <운명>을 비롯한 이 시기 작품들은 전영택의 초기 소설이 3·1운동 이후의 사회적 상황과 긴장하는 양상을 보이며, 당시 지식인 작가들이 선택한 실천적 윤리의 한 길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운명>의 주인공 오동준은 면회 오는 사람 없이 경성감옥에서 삼개월을 지낸 후 출소한다. 그는 어려서 결혼한 아내가 있지만, 동경에서 H와 연애를 하게 되어 남다른 고뇌를 안고 있다. 그는 애인 H에게 “「사랑」이라는거슨神聖한거시지만「結婚」은 人工的이오 虛構的²¹⁾이라고 말해왔다. 소설은 H가 ‘자신이 아픈 동안 극진히 자신을 간호해준 A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편지로 마무리된다. 이 소설은 경성(결혼)과 동경(연애) 사이에서, 동경을 꿈꾸다 ‘경성감옥’이라는 현실로 인해 그의 이상이 좌초되어 버린 오동준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 <운명>은 3·1운동 이후 엄혹한 검열 아래서 발표된 소설임을 감안해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경성감옥의 생활로 인해 ‘사랑’의 파괴되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식민지 지식인의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 현실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좌절되었음을 드러낸다.

전영택은 <혜선의 사>에서 애써 여성화자를 소설의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운명>에서 표현한 자유연애를 둘러싼 남성욕망의 상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연애와 결혼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식민지 경성의 복잡함이 <혜선의 사>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유연애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식민지 경성에서는 ‘비극적 결과’를 포자처럼 뿌려댄다. 전영택은 <혜선의 사>에서 ‘자유연애’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미칠 파문을 조명함으로써 ‘연애와 윤리’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성찰했다.

20) 밧늘봄, <毒藥을마시는女人>, 『창조』 8, 1921.1.

21) 위의 책, 53쪽.

또 그 한편에는 ‘제국과 식민’의 관계 속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억압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비근대적 존재의 파멸

반면, <천치? 천재?>(1919)²²⁾는 근대적 제도 혹은 근대 교육이 어떻게 한 소년을 파멸로 몰아갔는가를 보여준다. 그간 이 소설은 자연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상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작품이라는 것이다.²³⁾ 하지만, 이 소설을 작가의 근대인식과 관련해 해석하면, 만만치 않은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소설 속 화자인 ‘나’는 중화군에 있는 덕영학교에 교사로 부임해 열세 살난 칠성을 가르치게 된다. 칠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천치’로 취급을 받는 이른바 ‘비정상적인 아이’다. ‘나’는 칠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칠성은 자연 속에서 시인처럼 교감하는 아이이며, ‘옥을 옥판에 굴리는 듯’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감동적 면모를 보인다. 그런가 하면, ‘젓지 않고 가는 배’를 만드는 천재성을 드러내 나를 놀라게 한다.

그렇다고 칠성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칠성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 단지 호기심으로 인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만년필을 망쳐 놓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

22) 長春, <天痴? 天才?>, 『창조』 2호, 1919.3.

23) 백철은 이 작품을 전영택 초기소설의 수작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략) 이 작품이 자연주의 작품 系列에 속한다는 충분한 反證이다. 그리고 대체로 이 작품이 묘사보다도 전체가 敘述的인 것이요, 또 내용에는 教監에 대한 태도 七星이와 七星 어머니에 대한 同情과 理解에 休우머니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題材에 대한 작자의 文學적 태도가 前時期의 春園과 같이 이상화하지 않고 後期의 낭만주의 작가와 같이 主觀을 강요하지 않고 存在한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사실이 주목을 끈다.”(백철, 『新文學史潮史』, 서울:신구문화사, 1983, 132쪽.)

의 시계를 훔쳐 분해해 버리기도 한다. 칠성의 무책임에 대해 ‘나’는 호되게 야단을 칠 수 밖에 없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충돌의 와중에서 칠성은 평양을 가겠다고 길을 나섰다. 길가에서 얼어 죽고 만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가 칠성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갖게 되는 ‘윤리적 자의식’이다.

七星이가 업서지기前날에, 學校에서 었든 學生의 時計가 업서졌습니
다. 그래서 나는 學生을 하나식불너서 몸을 뒤져 보았습니다. 그時計가
마참내 七星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時計는 벌써 다 傷하여 버렸더이다.
나는 七星의 버릇을 알면서도 前에 내 萬年筆버린생각도 다시 나고 내
가 었했것 애쓴거시 虛地에 도라간거시 너머 憤해서 前後를 생각지아니
하고 채씩으로 함부루 때리기를 몹시하엿습니다. 그러나 七星은, 남이
가진 時計에 慾心을 내여서 흠친거슨 아니외다. 똑딱夕夕 가는거시 異
常해서 깨설여 불냐고 흠친거신줄아나이다. 七星의게는 네것 내거시 없
섯나이다. 동모가 가진 時計나 길가에 잇는 나무샘이나 다름이 업섯나
이다. 그는 무어시나 異常한거시 이스면 쫓까지 보고야마는 熱心을 가
졌섯나이다. 내 萬年筆을 썩근것도 그것이어이다. 나는 그거슬 妨害하엿
나이다. 나뿐아니라 자기周圍에 잇는 사람은 모도 七星의 하는일을 妨
害하엿습니다. 그런동내를 七星은 썩넛습니다.²⁴⁾

근대는 일상과 교육, 그리고 제도를 통해 규율권력을 완성한다.²⁵⁾ 근

24) 위의 책, 30쪽.

25) 이진경은 맑스를 재해석하면서 ‘근대적 주체 생산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맑스는 근대 사회의 인간, 혹은 근대적인 주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의 ‘습관화된 생활제도’는 자본주의 내지 근대라는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규율’과 전혀 다른 활동방식을 뜻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사람들 개개인을 그 새로운 규율에 따라 활동하고 생산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에 의해 고용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봉건적인 생산의 배치를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배치로 대체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차라리 반대로 새로운 규율에 의해 훈육된 주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선 자본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확립될 수 없었다.”(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 주체 생산의

대인은 표준적 인간이고, 그 만들어진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를 도태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비근대적 인간에게 근대는 폭력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근대적 규율권력이고, 칠성은 근대 권력에 포섭되지 않는 자연인의 형상에 가깝다. 칠성은 비근대적 인간을 표상한다. 그는 ‘나’에게 ‘천치인지, 천재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경계에선 인물이다. 이 경계인에게 근대적 규율은 치명적 억압이 되고 만다. 치명적 위협은 근대적인 것에 익숙한 모든 주변인물들에게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근대적 생산품인 만년필과 시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규율의 체계를 형성한다.

근대적 규율로 인한 칠성의 비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설해 낼 수도 있다. 징후적 독법을 활용할 경우, 텍스트의 이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그 지평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이 소설은 한 소년의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한 ‘나’의 자책감이 곳곳에 드러난다. 칠성은 ‘자연의 일부’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근대적 교육과 주변의 억압(외삼촌의 매질)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그 희생의 원인은 칠성에게 있는 듯하지만, 합리적 태도로는 칠성이 과연 ‘천치인지, 천재인지’도 판별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근대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칠성의 행위는 특수한 것이지만, 전근대적 질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칠성의 태도가 오히려 보편적일 수 있다.

칠성의 죽음은 근대에 대한 공포를 표상한다. 획일화된 체계가 ‘베품과 보살핌’이라는 공동체적 윤리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소유에 기반한 경쟁의 논리를 일반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 소설에는 내재해 있다. 인간적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근대 교육이 실제로는 경쟁을 내면화하는 것이고, 표준에서 벗어난 이에게는 가혹한 폭력이 될 수도

역사이론을 위하여』, 서울:문화과학사, 1997, 151~152쪽.)

26) ‘징후적 독해’와 관련해서는 피에르 마슈레의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이영달 옮김, 서울:백의, 1994)를 참고했다.

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근대적 제도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소설은 전영택의 윤리 의식이 근대체제 속에서 갈등하며 ‘철성’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약소자에 대한 연민

전영택의 초기 작품은 근대체제에서 배제된 하위계층인 약소자(minority)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사회적 무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지게꾼·버림받는 노인·호기심 많은 소년 등이 그의 소설적 형상화의 대상이었다. 약소자는 유력자(majority)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통합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적 권리가 ‘배제되거나 박탈된 이들’이며,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호명된 ‘하위주체(subaltern)’이기도 하다.²⁷⁾ 이러한 약소자 개념을 원용해 전영택의 초기 소설을 살펴보면 복잡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 목회자로서 넓은 의미에서 서구의 보편적 인식체계를 수락했다. 그러면서도, 식민지 약소자의 상황을 애써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포착했다. 약소자이면서 하위주체인 이들에 대한 형상화는 이광수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나 지식인을 내세워 계몽주의적 소설을 쓴 것과 대비된다. 전영택은 소설에서 포착해낸 삶의 구체적 실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화해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때로는 균열적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적 제시에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가 <화수분>이라면, 후자는 <바람부는 저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유력자에 대응하는 약소자는 1) 유력자의 권력을 드러내면서도, 2) 유력자의 ‘관용’에 의존하지 않고 체제 밖에서 체제의 부정성을 증언한다. 3) 이를 통해 윤리적 반성 과정에서 주체성을 획득하며, 4) 그 윤리성과 주체성에 입각해 새로운 연대의 틀을 구성해 현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상징조작’에 저항한다.” (오창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2009, 132쪽.)

전영택의 대표작 <화수분>(1925)²⁸⁾은 행랑살이를 하는 가난한 가족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소설이다. 화수분은 원래 양평에서 농사를 지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차차 가세가 기울어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화수분의 가족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단벌 홉옷과 조그만 남비, 그리고 낱팜팔이 지게가 전부이다. 화수분은 곤궁한 형편을 견디지 못해 아내가 큰 딸 귀동이를 남의 집에 보내 버리자, 밤을 세워 울며 애석해 하기도 할 정도로 부정(父情)이 깊은 사람이었다. 가난으로 인해 가족을 건사하지 못하는 화수분의 애통함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다.

<화수분>의 결말은 근대 초기 단편소설의 백미로 꼽힐 정도로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다.²⁹⁾ 화수분이 형의 농사일을 도우러 양평에 갔다가 몸살로 몸져 누운 사이에, 화수분의 아내는 어린 딸 옥분을 업고 그를 만나러 임동설한에 길을 떠나게 된다. 화수분도 마침 가족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가, 소나무 아래에서 상봉했다. 하지만,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끼안은 채 밤을 지낼 수밖에 없어 결국 추위에 얼어죽고 만다. 딸 옥분이란 화수분 부부가 꼭 끼안은 사이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살아나 강렬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이 소설은 작가의 감정이 절제돼 있으면서도, 삶의 비극성을 절실하게 형상화했다는 측면에서 근대소설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흔히 “화수분 내외의 삶은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 무지한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어린 딸을 살릴 수 있었기에 값진 인생이 되는 것”³⁰⁾으로 평가되곤 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좀 더 나아가 이면의 의미구조를 파악

28) 늘봄, <화수분>, 『조선문단』 4, 1925.1.

29) 윤홍노는 <화수분>을 김동인의 <감자>, 현진건의 <불>, 나도향의 <물레방아>와 함께 근대소설의 꽃으로 평가했다. (윤홍노, 「근대소설의 태동기 - 암울한 시대인식과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서울:현대문학, 1994, 100쪽.)

30) 김세령, 「전영택 초기 소설 연구」, 『상허학보』 2집, 상허학회, 2000, 280쪽.

하기 위해 화자인 나와 화수분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오히려 오히려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 대한 실존적 고민 속에서 윤리의식은 실천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시민적 입장에 선 ‘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화수분 가족의 가난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여력은 없으므로 제시되어 있다. 화수분이 형의 일을 도우러 양평으로 떠날 때에 ‘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화수분과 나눈다. 이는 ‘나’와 ‘아내’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범은 뜰에서 허리를 한번굽히고 말한다.

『나리 당겨 오겠습니다. 제성이 일하다가 독기로 발을 썩어서 일을 못하고 누웠다가 가보아야겠습니다. 가서 추수나 해주고는 곳 오겠습니다. 거저 나리떡만 맛고 갑니다.』 나는 엇더케 대답해스면 조흔지 몰나서

『잘뎡겨오게』하였다.

아범은 다시한번 절을하고 「안령히게십시오」하면서 도라서나간다.

『저러케 내버리고 가면 엇더캄닛가. 우리도 살기어려운데 엇더케 불째주고 먹이고 낚히고 할테요. 그러케 곳 오겠소?』 이러케 걱정하는 안해의 말을 듣고 나는뻗비 나가서 화수분을 불너서

『곳 당겨오게. 겨울을 나서는 안되네.』하였다.

『암 곳당겨웁시오』화수분은 뒤를 돌아보고 이러케 대답을 하고 다라난다.³¹⁾

화수분은 무능력자가 아니다. 안간힘을 써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화수분의 처지를 동정하는 ‘나’와 ‘아내’도 그들 가족의 가난을 떠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한 겨울에 어머니 주인집에 미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섰을 때, 방관한 나의 태도이다. “바람뭇시 불고 치운날 아참에 어멈은 어린

31) 늘봄, <화수분>, 위의 책, 344쪽.

것을 업고” 떠났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놓고도 “어머니 잘갔나 어리죽 지나 아녜나?”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내면에 방관자로서 연루된 죄의식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것이다. ‘나’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화수분 가족의 불행은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연민은 소모적 감정일 수도 있다. 그것은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소시민적 태도’의 소산이며, 윤리적 실천으로부터 괴리된 감정의 발산일 뿐이다.

전영택은 <화수분>에서 연민의 감정을 ‘화수분 부부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극단적으로 해소한다. 하지만, ‘나’와 ‘아내’의 소시민적 태도는 팔호 처 질 수밖에 없다. 어머니 어린 것을 업고 추위에 길을 떠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의식은 ‘비극의 증언자’로서 작가의 위치와 겹쳐진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몰린 나의 상황이 운명에 대한 수락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윤리는 운명과 갈등하면서, 그 실천적 의미를 획득한다. 결단하지 않는 윤리는 그저 순리일 뿐인 것이다. 그 갈등의 현장을 냉혹한 사실주의적 태도로 제시한 전영택의 작가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 ‘나’의 소시민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화수분’ 부부의 숭고한 희생의 윤리가 더욱 돋보이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화수분>에 비해 <바람부는 저녁>(1925)³²⁾은 훨씬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이 작품은 혈육도, 일가친척도 없이 칠순 가까이에 이른 한 할머님을 개성적으로 그리고 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옥은 고향집에서 할머님을 서울로 올려 보낸다는 전보를 받고 곤란해 한다. 집안을 도와주던 할머님은 성격이 괴팍스럽고 뻔뻔했기에 달갑지 않은 것이다. 할머님은 삶의 신산(辛酸)을 다 겪어낸 인물로 ‘소리 잘하고 춤 잘 추는 충청도 할머님’ 혹은 ‘기생 할머님’으로 통했다. 스스럼 없이 주인마님에게 ‘떡 사달라, 사탕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주인집의 흥을 함부로 보기도 한다. 신분

32) 늘봄, <바람부는 저녁>, 『영대』 1, 1925.1.

질서를 뛰어넘는 할멈의 이러한 행태는 기이하면서도 위태롭다. 어떤 의미에서 할멈은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적 인물이며, 정상적 삶을 살아가려는 정옥을 위협하는 ‘타자’이다. 정옥은 이런 할멈이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져서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만 한다. 정옥은 기차역에 할멈 마중도 가지도 않고 애써 무시했다. 할멈은 혼자서 인력거로 정옥의 집에 들이닥치고, 정옥은 인력거 운임을 물어주게 된다. 약소자이기는 하지만, 뻔뻔스럽게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정옥의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

한사십분만에 덩옥은 도라왔다. 바람이 몹시부는데 나갔다가온 덩옥은 불이 빨개져서 아모말도없시 드러온다. 덩옥의 아지머니는 잠간 기다려서 무리보았다.

「엇더카고 왓소?」

「사직골가서 두리번~할재 획도라서왓지」

할멈은 갖다버리고와서 덩옥은 마음에 죄송스러운 생각이만코 큰죄나 저줄너 노은것 갖해서 공연이 가삼이 술녕거리고 마음이 편치못하든 터에 오라버니 편지에 - 「하나님 띄서 내려다보신다」

하는 구절에 니르러서는 벽력이 내리는듯이 속이 씩씩하고 정신이 앓득하였다. 그것이 편지의 구절갓지안코 공중에서 나는 텃사의 소리갓치 덩옥을 위협하였다. 씩작이 눈물이 핑돌며 덩옥은 망연이 안졌다.³³⁾

할멈에 대한 연민만으로 할멈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정옥의 생각이다. 결국, 정옥은 할멈을 사직골에 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귀가한 후, 오빠가 보낸 편지의 구절 ‘하나님 띄서 내려다보신다’을 읽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정옥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외부의 질책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수분>의 ‘나’는 화수분 내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자책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바람부는 저녁>에서 정옥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기 보다는 외부적 자극으로 인해 죄의식을 느낀다.

33) 위의 책, 16~17쪽.

이 소설은 1920년대 식민지 근대도시인의 태도를 정옥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정옥이 할멈을 사직골에 유기한 행위는 비정하면서도 계산적이다. 이 비정함은 식민지 근대도시 서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된다. 이 소설은 정옥에 대한 종교적 질타에 머문다. 1920년대 중반의 도시적 삶은 이미 정옥 같은 이들을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런데도, 할멈에 대한 유기가 결국 주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형상화하기 보다는 죄의식을 끌어들여 잘못을 질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영택 소설이 <화수분>에서 이뤄낸 성취에 미치지 못하는 퇴행적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소설 세계는 1926년 단편집 『생명의 봄』³⁴⁾을 간행한 이후 종교적 색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IV. 식민지 지식인이 응시한 ‘근대의 그늘’

전영택은 1920년대에 문학적 치열함이 가장 두드러졌고, 다시 1950년대에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으로 문학활동을 재개했다. 1961년에는 한국문인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문학제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는 한국문학사에서 『창조』 『조선문단』 등의 매체가 위치한 굵직한 마디에 돌출새김 되면서, 근대초기문학과 분단 이후 한국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작가이다. 전영택 초기 소설의 가치는 일제 강점기 배제된 주체들의 비극적 삶을 포착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된 부정적 근대의 진상을 그려냈다는데서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냉정한 시선으로 과감한 생략의 기법을 활용하고, 감정을 가급적 배제한 서술로 단편소설의 미학적 발전에도 기여했다. 『창조』 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광수의 계몽주의 문학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주의

34) 전영택, 『생명의 봄』, 설화서관, 1926.

문학을 작품 속에서 구현해 냈으며, 구어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문체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러한 형식적인 혁신 이외에도 그의 소설세계가 구현하고 있는 내용적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전영택의 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휴머니즘의 표현’으로 고착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영택의 초기 작품은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적 갈등에 대한 다양한 징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예술과 종교 사이의 긴장 아래서 독특한 근대인식의 결을 형성했다. 그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을 약소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선택했다. 근대를 꼭 성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근대의 그들을 문학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이는 계몽주의적 태도로 반봉건을 자신의 과제로 설정했던 이광수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미학적 근대에 대한 감각을 통해 ‘예술을 우월적 지위’에 놓고자 했던 김동인과의 다른 길이었다. 그렇기에 전영택은 숙명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실천적 윤리로 가 닿으려 했고, 그 노력이 빚어낸 대표작이 <천재? 천재!>와 <화수분>이었다. 이 두 작품은 근대로부터 배제된 약소자들이 처해 있는 폭력적 상황을 징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근대의 그들의 예시했다는데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영택의 초기 작품이 사회의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소자를 소설화의 대상으로 포착했다는 점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할 때, 근대 초기에 전영택이 차지했던 문학사적 위치가 제대로 가늠될 수 있다. 근대 초기 문학을 평가할 때, 흔히 이광수와 김동인·현진건·염상섭·최서해를 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광수는 계몽주의적 입장 속에서 선각자적 태도로 아버지로 대별되는 전근대적 주체와의 투쟁을 감행했다. 그의 의식 속에는 근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절대화하고, 이를 선택한 자로서의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김동인·현진건·염상섭·최서해는 ‘개인의식’에 입각해 근대

적 예술인의 위치를 자각했다는 측면에서 이광수의 의식과 구별된다. 김윤식·김현은 이들 작가들이 선택한 독자층에 주목한 바 있다. 즉, 김동인과 현진건은 ‘자기 삶에 안주할 수 없는 소시민’을, 염상섭은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점차로 발견하여 가는 양식있는 부르조아지’를, 최서해는 ‘고통스럽게 삶의 대지에서 유리되어 가는 하층민’을 각각 독자층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³⁵⁾ 이광수의 문학세계가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면, 김동인·현진건·염상섭·최서해의 문학세계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는 구체적 근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윤식·김현의 주장이다.

전영택의 근대인식은 ‘보편적 윤리’(이광수)와 ‘구체적 개인’(김동인·현진건·염상섭·최서해) 사이에 갈등하는 ‘소시민 의식’을 포착해내는 데로 나아갔다. 그는 ‘자기 삶에 안주할 수 없는 소시민’의 시각으로 ‘고통 받는 하층민’의 삶을 주시했다. 근대체제의 산물인 소시민의 감각을 그 누구보다 먼저 선취하고, 이를 형상화해낸 작가가 전영택이라는 사실은 기억할 만하다. 그가 <혜선의 사>를 통해서 여인의 입장을 채택해 ‘자유연애’가 식민지 경성에 미치는 파국적 결말을 제시한 것이라든지, <천지? 천재?>에서는 근대적 규율권력이 ‘자연인으로서의 칠성’을 어떤 방식으로 파괴하는가를 아프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도 ‘소시민 의식’과 연결된다. 또한, <화수분>과 <바람부는 저녁>에서는 소시민의 시선과 약소자의 상황을 겹쳐냄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의 ‘균열된 윤리의식’을 아프게 성찰해낸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는 근대를 절대화하지 않고 근대의 그늘을 응시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소시민적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약소자를 방기하지 않으려는 자기 성찰적 태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영택의 초기 소설은 ‘보편(이광수)’과 ‘개인(김동인·현진건·염상섭·최서해)’ 사이에서 윤리의 문제를 고뇌한 ‘근대적 소시민을 발견한 문학’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3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서울:민음사, 1973, 153쪽.

참고문헌

- 김동인, 「春園研究(五)」, 『삼천리』 제7권 제3호, 삼천리사, 1935.3, 171~172쪽.
- 김세령, 「전영택 초기 소설 연구」, 『상허학보』 2집, 상허학회, 2000, 280쪽.
- 김윤식, 「증언으로서의 소설 - 염상섭론」, 『20세기 한국 작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3쪽.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서울:민음사, 1973, 153쪽.
-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서울:소명출판, 2005, 201쪽.
- 늘봄, <바람부는 저녁>, 『영대』 1, 1925.1.
- 늘봄, <생명의 봄>, 『창조』 5~7, 1920.3·5·7.
- 늘봄, <화수분>, 『조선문단』 4, 1925.1.
- 밧늘봄, <毒藥을마시는女人>, 『창조』 8, 1921.1.
- 백철, 「한국의 현대소설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논문집 4』, 중앙대학교, 1959.10.
- 백철, 『新文學史潮史』, 서울:신구문화사, 1983, 132쪽.
- 백철·이병기, 『國文學全史』, 서울:신구문화사, 1987, 287쪽.
- 양현혜, 「‘황민화’ 시기 개신교 실력양성론의 논리구조 -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 세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한국종교학회, 2008, 101~103쪽.
- 오창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2009, 132쪽.
- 윤홍노, 「근대소설의 태동기 - 암울한 시대인식과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서울:현대문학, 1994, 100쪽.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서울:홍성사, 1979, 257쪽.

-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 주체 생산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서울:문
화과학사, 1997, 151~152쪽.
- 이현숙, 「전영택 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임희중, 「늘봄 전영택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4.
- 長春, <運命>, 『창조』 제3호, 1919.12.
- 長春, <天痴? 천재?>, 『창조』 2호, 1919.3.
- 長春, <惠善의 死>, 『창조』 창간호, 1919.2.
- 전동신, 「전영택의 기독교적 인도주의 고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전영택, 「『창조』와 『조선문단』과 나」, 『현대문학』, 1955.2.
- 전영택, 「나의 문단 자서전 - 그 시대의 나의 생활회고기」, 『자유문학』,
1956.6.
- 전영택, 「나의 문단생활 회고」, 『신천지』, 1950.4.
- 전영택, 「성문학(聖文學)」, 『기독신보』, 1920.1.8.
- 전영택, 「창조시대 회고」, 『문예』, 1949.12.
- 전영택, 「창조시대, 문단의 그 시절을 회고함」, 『조선일보』 1933년 9월
20일자, 2면.
- 전영택, 『생명의 봄』, 설화서관, 1926.
- 전영택, 표언복 엮음, 『늘봄 전영택 전집 3』, 대전:목원대학교 출판
부, 1994, 506~507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서울:지식산업사, 1994, 113쪽.
- 최옥선, 「늘봄 전영택론 : 기독교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
위논문, 1972.
- 표언복, 「늘봄 문학의 기독교 수용」,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7.
- 표언복, 「늘봄 전영택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6.1, 184쪽.
- 피에르 마슈레, 이영달 옮김,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서울:백의, 1994.

<Abstract>

Modern Perception and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Colony Intellectuals
- A Study on Jeon Yeong-Taek's Early Short Stories -

Oh, Chang-Eun

Jeon Yeong-Taek was a writer whose literary intensity was most prominent in the 1920s. The value of Jeon Yeong-Taek's early novels is pronounced in that he described the truth of negative modern times that had been formed in the colony Joseon by grasping tragic life of alienated people under the imperialist Japan's colonial rule. He also contributed to the aesthetic development of short stories by utilizing bold ellipsis techniques with cool vision and by excluding emotion as much as possible in describing things. As a member of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Changjo," he embodied naturalistic literature in his works in order to overcome Lee Gwang-Soo's enlightenment literature. Besides such formal innovation, we need to take notice of the aspects of contents embodied in his world of novels. The evaluation of Jeon Yeong-Taek's novel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has been stereotyped as 'the expression of humanism based on Christian view of the world.' However, Jeon Yeong-Taek's early works make it possible to do diverse symptomatic interpretation of inner conflicts of the intellectuals in the colony. He compared men's desires with women's desires that were bound to be opposed to each other over free love ("the Death of Hyeseon") and sensuously grasped

the violent alienation that modern order imposed on people in the lower social classes (“Idiot? or Genius?”). He also gave a graphic description of catastrophic circumstances in petty bourgeois compassion with subtle self-consciousness (“Hwasooboon”), and described the ethical collapse that was imposed on the weak people by urban apathy (“Windy Evening”). His work of this kind ultimately formed a relatively high density in tension between art and religion. The “Idiot? Genius?” and “Hwasooboon” can be cited as his most important works produced by his efforts to approach practical ethics instead of resigning himself to his fate. These two literary works symptomatically showed the violent circumstances faced by the weak people who were alienated from the modern age

Jeon Yeong-Taek’s modern perception secures the personality of a writer while it is conflicting between ‘a physical individual’ and ‘universal ethics’. He watched attentively the life of ‘people suffering in the lower classes’ from an angle of ‘petty bourgeois who cannot lead a comfortable life alone’. Through the “Death of Hyeseon” he adopted the woman’s position to present the catastrophic conclusion that the ‘fee love’ had brought about in awareness of the colony, and in “Idiot? Genius?” he poignantly described how the modern discipline power destroyed ‘Chilseong as a natural person’. Also in “Hwasooboon” and “Windy Evening”, he painfully reflected on the ‘cracked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colony intellectuals’ by overlapping petty bourgeois’s visual angle with the weak people’s circumstances. This is the attitude that refuses to make the modern age absolute and is the outcome engendered by the efforts of ‘self-reflection’ not to abandon the weak people while he was

conscious of his own circumstances of petty bourgeois. In that sense, Jeon Yeong-Taek's early short stories can signify as the 'literature of the weak' that agonizes over the problems of ethic between 'universality (Lee Gwang-Soo)' and 'the individual (Kim Dong-In, Hyeon Jin-Geon, Yeom Sang-Seop, Choi Seo-Hae).

Key Words : Jeon Yeong-Taek, colony intellectuals, modern perception, ethical consciousness, "Changjo", "The Death of Hyeseon", "Idiot? Genius?" "Hwasooboon", "Windy Evening"

■ 논문접수 : 2009년 7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8월 10일